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주장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Warm Parenting Style and Self-Esteem on Children's Assertiveness and Aggression

1차원고접수: 2026.03.16. 수정원고접수: 2026.05.27. 최종게재결정: 2026.06.21.

고지영¹ · 한세영²

¹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²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Ji Yeong Go¹

Sae-Young Han¹

¹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행동 특성인 주장성과 공격성을 각각 독립적인 변인으로 설정하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C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 학년 아동 231명(남아 91명, 여아 14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으로 경로모형(Path Analysis)을 설정하여 변인 간 경로를 분석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주장성과 공격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수준에서 서로 다른 복합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주장성과 공격성의 선명한 구분을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유의한 간접적 경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간접효과는 유사하였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온정적인 양육을 받은 것으로 지각한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주장성과 정적인 관련, 공격성과는 부적으로 관련되는 매개 경로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장성과 공격성을 나누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통해 두 행동 특성의 발달기제를 비교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주장성, 공격성,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ssertiveness and aggression as distinct behavioral constructs that are often socially confused, and to analyze their indirect relationships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self-esteem in the association with parents' warm parenting attitud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231 fifth- and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91 boys and 140 girls) residing in C-si, Chungcheongbuk-do.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MOS 23.0 was used to conduct path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tested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nd aggression at the overall level. However, complex relationships emerged at the sub-factor level, suggesting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clarify their distinction. Both fathers' and mothers' warm parenting attitudes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assertiveness and aggression through self-esteem, with similar patterns observed across parents. Higher perceived warm parenting was associated with higher self-esteem, which in turn was positively related to assertiveness and negatively related to aggression.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ompare the developmental mechanisms of assertiveness and aggression through their relationships with warm parenting and self-esteem.

Keywords assertiveness, aggression, self-esteem, warm parenting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5)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한세영(Sae-Young Han)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evenhow@ewh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는 문항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자기평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2022)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정신장애 중 파괴적 충동조절 및品行장애의 유병률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기 아동의 다수는 감정표현과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미숙한 자기표현과 부적절한 표현 방식이 갈등 해결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단순한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적응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 및 복지 정책 전반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자기주장과 리더십과 같은 사회적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또래와의 갈등 상황이나 자기 권리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장적 표현은 보호자나 교사에 의해 반항적 또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하며(Newell & Olsen, 2003), ‘주장성(assertiveness)’이 종종 ‘공격성(aggression)’으로 오인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인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주장성과 공격성은 자신에 대한 위협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발현되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겉으로 보기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반박하는 행동으로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장성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김성희, 1984)을 의미하며 아동기의 높은 주장성은 사회적 추론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또래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인복, 서미정, 2024; Barrett & Yarrow, 1977). 반면 주장성이 낮은 경우 대인관계의 갈등이 증가하며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Ames, Lee, & Wazlaewk, 2017), 또래관계에서 인기와 지지 수준이 낮아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한중, 2012). 이러한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아동의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이서경, 이영호, 2024), 주장성 발달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서적 건강, 사회성, 또래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역량의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강지훈, 2003)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자기 방어 수단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 행동 특성으로 간주된다(Coie & Dodge, 1998).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주장성과 달리,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기의 공격성은 부정적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지혜, 김유미, 2021; 주봉정, 장형심, 2024),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박미향, 김완일, 2014). 따라서 주장성과 공격성은 그 동기와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행동으로 아동기에 적응적인 주장성은 강화하고, 부적응적인 공격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장성과 공격성을 분리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아동의 주장성을 주장행동, 자기표현 등의 유사 개념으로 다루거나(백양희, 정현영, 2012), 사회적 유능감, 대인관계유능성과 같은 상위 개념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강소연, 2010; 구현주, 문혁준, 2023; 박남심, 송승민, 엄희경, 2020). 따라서 주장성과 공격성을 각각 비교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동의 건설적인 자기표현 방식인 주장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주장성과 공격성을 다각도로 탐색하며 구분하는 경험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은 태어나서 신체적, 심리적 성장을 이루며 양육자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환경을 탐색하

고자 하며,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살펴본다면 아동은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면화된 심리적 대상을 형성하고 내면화된 대상은 이후의 성격발달과 대인관계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lein, 2018; Winnicott, 2018). 초기 양육자, 즉 부모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개념 형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양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애정, 수용, 일관성 있는 반응은 아동이 긍정적인 내적 대상을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긍정적 내적 대상을 형성한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반면, 반복적으로 거부 받거나 비일관적인 혼란스러운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부정적 내적 대상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Kernberg,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관계이론에 따라 개인 외적 환경요인인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의 경로를 통해 주장성과 공격성의 발달 기제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정적이며 일관되고 분명한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 신뢰감, 편안함을 느끼고(박성연, 2006),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게 되며, 대인불안에 대한 수준이 낮아 자기방어에 필요한 표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숙, 2003; 최주영, 서경현, 2015). 또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과 반응성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일관되게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Krauss, Orth, & Robins, 2020; 임화정, 민경아, 2024), 사회적 위축을 낮추고 협동 역량을 향상시키며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강현주, 최난이, 2021; 박선옥, 이은희, 2020)로 미루어 보아 어려서부터 경험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주장성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동의 공격성 역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두 관계를 다루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제공하였을 때,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ron, 1982; Mize & Pettit, 1997; Olweus, 1980),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정적인 관계는 아동의 충동 조절 능력과 공격성 감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roufe, 2005; Thompson, 2006). 또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을 높여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다경, 염시창, 2015; 황대현, 2013)를 통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격성을 직·간접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핵심 요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아동기 자아존중감과 주장성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아동기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친밀성과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성으로 이어지며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강서영, 2010; 이민선, 채규만, 2012)는 선행연구 결과는 아동기의 자아존중감과 주장성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반면 아동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 및 정서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최은영, 최인령, 2002),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일수록 좌절 상황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대인관계에서 충동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또한 박영숙(2022)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공격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주장성과 공격성 간의 경로에서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자면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사이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영숙의 연구(2020)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일 년 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특성은 아버지의 양육특성보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백주희, 장유진, 2023)도 존재한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지만(송미옥, 이경호, 2017; 이소현, 2018),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이승은, 2018)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김철희(2014)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향을 제외하고도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 완화에 독립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각각의 영향을 구분한 연구 결과가 누적될 필요가 있으므로 (Grolnick, Caruso, & Levitt, 2019),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예측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주장성과 공격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던 두 사회적 행동 특성의 발달 기제에서의 차이를 탐색하고, 주장성과 공격성의 차별적 함의를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

중감,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 간의 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 C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31명이다. 학령 후기 아동은 사고가 성숙해지고 또래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는 발달 단계이므로(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Stipek & Iver, 1989)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더불어 학령 후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고(Rosen, 2018), 학업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외부 요인을 제한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학령 전환기 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91명(39.4%), 여아 140명(60.6%)이고 5학년 81명(35.1%), 6학년 150명(64.9%)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평균 연령은 12.65세($SD = 0.48$)이다. 아버지의 연령은 40 ~ 49세가 171명(74%)으로 가장 많았고 50 ~ 59세 39명(16.9%)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03세($SD = 4.18$)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연령 역시 41 ~ 49세가 189명(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미만이 28명(1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32세($SD = 3.70$)이다.

2. 측정도구

1) 주장성

아동의 주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한중(2011)이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용 주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적극적 주장성과 방어적 주장성 두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3문항이다. 적극적 주장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 감정 및 견해를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 ‘내가 먼저 친구에게 놀자고 말한다.’, ‘모둠 활동을 할 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말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당당하게 말한다’ 등이 있다. 방어적 주장성은 타인의 주장행동 또는 공격행동에 대한 반응이며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 감정 및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친구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거절한다.’, ‘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다고 말한다.’, ‘내가 아끼던 물건을 망가뜨린 친구에게 속상하다고 말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향성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주장성 .81, 적극적 주장성 .71, 방어적 주장성 .70으로 나타났다.

2)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이 제작하고 한영경(2008)이 번안한 4가지 차원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하문선과 김지현(2013)이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한국 초기 청소년용 공격성 척도(K-PC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

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하위요인으로 각 4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각 8문항씩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주도적 공격성은 타인을 지배하거나 특정한 보상을 얻기 위해 나타나는 공격성이며 ‘인기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한 뒷말을 한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재미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으로 ‘누구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위협한다.’, ‘누가 나를 다치게 하면, 결국 싸움을 하게 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공격성 .80, 주도적 공격성 .74, 반응적 공격성 .74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의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방향성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Arrindell과 Engebretsen(2000)이 제작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EMBU)’척도를 조한익(2011)이 번안한 단축형 EMBU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 거부, 과잉보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온정’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8개 문항에 대한 응답만 사용하였다. ‘온정’ 하위요인은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님은 나를 많이 칭찬하셨다.’, ‘나는 부모님과 관계에서 따뜻한 정을 느꼈다.’, ‘내가 어떤 일을 잘 하면 부모님은 나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등이 있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부의 온정적 양육태도 .87,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ewha-202503-0013-01) 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 참여에 협조를 구한 충청북도 C지역의 초등학교와 학원에서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아동은 가정에서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고 연구자가 이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할 때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동봉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내용을 아동과 법정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아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최종분석에는 연구 대상자 동의서에 아동과 법정대리인이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 서명하여 제출한 23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변인의 범주별 빈도와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표본의 정규성 가정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은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주장성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χ^2 과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탐색 결과 공격성 변인에 있어서 성차가 보고된 연구가 다수인 바(김지원, 2023; 여태철, 김명섭, 2019;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본 연구 모형에서는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매개변인, 결과변인에 모두 경로를 투입하였으며 외생변인과의 공변인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로 모형에서의 통제방법은 외생변인 상관 - 매개변인 통제 - 결과변인 통제 모형에서 모든 개별 효과추정치 및 모형적합도가 가장 적절한 모형설정 방법이었다는 이진실의 연구(2019) 결과를 참고하였다. 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본 분석에 앞서 연구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표 1 참조). 대부분의 변인은 왜도의 경우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라는 정규성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Kline, 2023), 하위요인 수준에서 주도적 공격성 변인의 경우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 인버스 변인 변형(inverse transform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3.11 ~ 10.87로 산출되어 정규성 기준에 근접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특성과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특정 응답 범주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분포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첨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변인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에서만 투입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인 경로분석에는 공격성 변인만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에서는 경로모형을 구성하는 변인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변인 간 상관관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한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주장성과 공격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의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주장성의 하위요인인 방어적 주장성은 전체 공격성($r = -.15,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적 공격성($r = -.18, p < .01$)과는 더욱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전체 주장성과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반응적 공격성($r = .28, p < .01$)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주장성의 하위요인인 적극적 주장성과 반응적 공격성($r = .40, p < .01$)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기위협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주장성을 많이 보이는 아동은 오히려 낮은 공격성을 보이는 한편, 전체적으로 자신의 주장성을 높게 보고한 아동은 자신의 반응적 공격성도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주장성($r = .41,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공격성($r = -.21,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장성은 높고 공격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주장성($r = .2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공격성($r = -.16,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r = .41,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로부터 온정적 양육태도를 느낀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주장성을 보였고, 공격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주장성($r = .26, p < .01$)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자아존중감($r = .41,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로부터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느낀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주장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각 변인의 기술적 특성 및 상관관계

($N = 231$)

변인	1	1-1	1-2	2	2-1	2-2	3	4	5
1. 주장성	-								
1-1. 적극적주장성	.92**	-							
1-2. 방어적주장성	.86**	.58**	-						
2. 공격성	-.03	.07	-.15*	-					
2-1. 주도적공격성	-.11	-.03	-.18**	.81**	-				
2-2. 반응적공격성	.28**	.40**	.05	.66**	.46**	-			
3. 자아존중감	.41**	.43**	.42**	-.21**	-.18**	.00	-		
4. 부온정적양육	.25**	.23**	.21**	-.16*	-.13*	-.03	.41**	-	
5. 모온정적양육	.26**	.25**	.22**	-.11	-.09	-.05	.41**	.77**	-
<i>M</i>	3.82	3.81	3.84	2.31	-.97	1.94	3.20	3.38	3.46
<i>SD</i>	.52	.61	.54	.19	.09	.31	.51	.60	.55
왜도	-.01	.01	-.17	2.70	3.11	.84	-.84	-1.09	-1.43
첨도	-.80	-.84	-.34	9.39	10.87	1.43	.47	.73	2.01
최솟값	2.54	2.29	2.33	1.00	-1.00	1.25	1.40	1.39	1.38
최댓값	5.00	5.00	5.00	2.31	-.44	3.13	4.00	4.00	4.00

주. 주도적공격성은 인버스 변인 변형 값을 제시하였음(변형 전 값: 최소값 = 1.00, 최대값 = 2.25, $M = 1.05$, $SD = .14$).

* $p < .05$. ** $p < .01$.

3. 경로분석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주장성과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직접적 영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36(df = 1, p > .05)$, $\chi^2/df = 2.36$, GFI = .99, NFI = .99, TLI = .94, CFI = .99, RMSEA = .08(90% CI = .00, .21)로 나타났다.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χ^2/df 값이 3 보다 작을 때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Kline, 2023), 적합도 지수들 중 GFI, NFI, TLI, CFI 값은 .90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 모형은 자유도가 1로 매우 작아 RMSEA 값의 신뢰구간이 넓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모형이 적절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2 참조).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주장성과 공격성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1, 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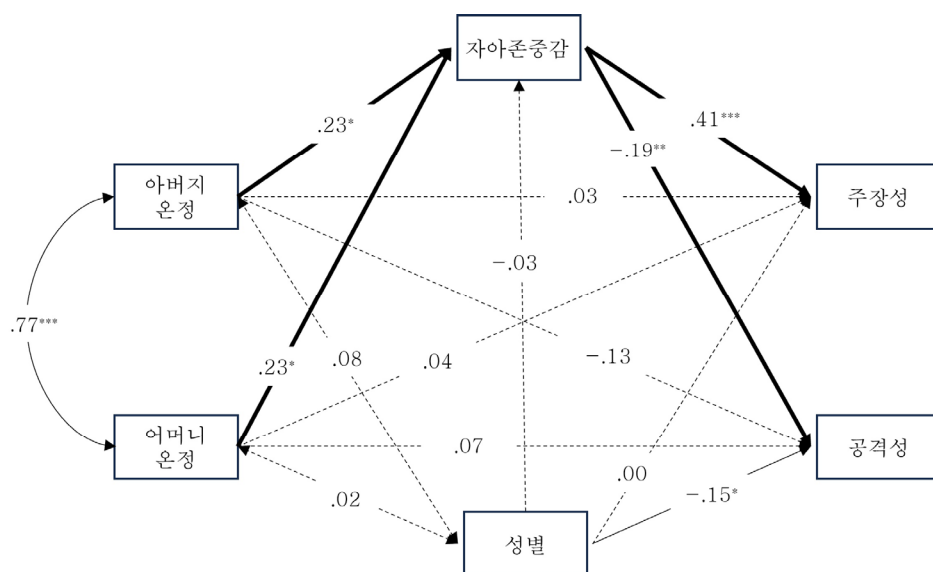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주장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주장성 및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표 3 참조). 먼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beta = .23, p < .05$)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역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하게 정적으로 관련($\beta = .23, p < .05$)되는 것으로

표 2.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231)

χ^2	df	χ^2/df	GFI	NFI	TLI	CFI	RMSEA (90% CI)
2.36	1	2.36	.99	.99	.94	.99	.08 (.00, .2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주장성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3.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231)

변인 간 경로	B	β	S.E.	C.R.
부 온정적 양육 → 주장성	.03	.03	.07	.35
모 온정적 양육 → 주장성	.03	.04	.08	.41
부 온정적 양육 → 공격성	-.04	-.13	.03	-1.29
모 온정적 양육 → 공격성	.03	.07	.04	.73
부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20	.23	.08	2.45*
모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22	.23	.09	2.51*
자아존중감 → 주장성	.37	.41	.06	6.14***
자아존중감 → 공격성	-.07	-.19	.03	-2.73**

주. 1) B는 비표준화 추정치이며, β 는 표준화 추정치임.

2) 오차항과 잔차항은 생략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231)

변인 간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95% C.I.)	간접효과 (95% C.I.)	총 효과 (95% C.I.)	
부 온정적양육 → 주장성	.03 (-.16 ~ .25)	.09* (.02 ~ .20)	.13 (-.07 ~ .35)	.19
모 온정적양육 → 주장성	.04 (-.16 ~ .22)	.10* (.01 ~ .19)	.13 (-.07 ~ .32)	
자아존중감 → 주장성	.41** (.27 ~ .52)		.41** (.27 ~ .52)	
부 온정적양육 → 공격성	-.13 (-.33 ~ .11)	-.04* (-.11 ~ -.01)	-.18 (-.38 ~ .06)	.08
모 온정적양육 → 공격성	.07 (-.17 ~ .25)	-.05* (-.10 ~ -.01)	.03 (-.21 ~ .21)	
자아존중감 → 공격성	-.19** (-.30 ~ -.07)		-.19** (-.30 ~ -.07)	
부 온정적양육 → 자아존중감	.23* (.06 ~ .46)		.23* (.06 ~ .46)	.19
모 온정적양육 → 자아존중감	.23* (.01 ~ .42)		.23* (.01 ~ .42)	

주. 1)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한 결과임.

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다시 주장성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관련($\beta = .41, p < .001$)되고 공격성과는 유의하게 부적으로 관련($\beta = -.19, p < .01$)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분석하였다(표 4 참조). 주장성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주장성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고($\beta = .09, p < .05$),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

중감을 통해 주장성에 이르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beta = .10, p < .05$). 공격성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관계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04, p < .05$),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부적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beta = -.05, p < .05$). 종합하자면,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을 온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주장성은 높은 수준, 공격성은 낮은 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주장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자아존중감에 의해 19% 설명되었고, 아동의 공격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자아존중감에 의해 8% 설명되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에 의해 19% 설명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주장성과 공격성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아버지의 온정적, 수용적 양육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철희, 2014)와 일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이다. 전체 주장성과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각 개념의 하위요인에서 주장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는 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주장성의 하위요인인 방어적 주장성과 전체 공격성 사이에 나타난 부적 관계는 자기위협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절된 표현 방식으로 주장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대로 전체 주장성과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반응적 공격성 사이에서 나타난 정적관계는 자신의 주장성을 높게 인식한 아동일수록 자기위협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충동적이

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성도 높게 지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장성과 공격성에 대한 모순적인 상관관계는 하위요인 수준에서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장성과 공격성을 측정할 때 개념 구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결과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장성은 회피, 수동적인 행동에서부터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Ames 등(2017)의 의견을 일부 뒷받침한다. Ames 등(2017)에 의하면 개인의 주장성에 대한 판단은 상황과 표현 방식,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장성에는 수동성, 회피, 철회부터 협동, 협력, 경쟁심, 강압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장성이 적응적인 측면을 벗어나는 빈도와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하위요인 수준에서 나타난 복합적 관계는 주장성과 공격성 간 공통된 심리적 기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며, 높은 자기애를 지닌 개인은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주장적 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Hart, Adams, Burton., & Tortoriello, 2017), 동시에 공격성과도 정적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은희, 2022).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자아 관련 심리 특성이 상황에 따라 주장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으로 모두 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두 변인이 정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Hart, Richardson과 Tortoriello(2021)는 자기애 성향을 지닌 개인이 자기 위협 상황에서 공격적 반응을 보이기 쉽지만,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그 반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일한 심리적 기반이 개인의 내적 자원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장성과 공격성 하위요인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는 측정 도구가 주장성과 공격성의 구분을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였을 수 있을 수 있고, 심리적 특성이 두 행동에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주장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 하위요인 수준의 접근과 함께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직접 효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온정적으로 지각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주장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모두 아동의 주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여 이들 간의 관계는 존재하지만 직접효과보다는 매개 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한영숙, 정영선, 2022)와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한세영, 조연수, 유설희, 2023), 정서조절(오인경, 백지숙, 2018) 등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하고 단순한 직접효과보다 다양한 매개요인을 통해 그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하며, 중간 매개 변수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탐색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유의한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모로부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며,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주장성과는 정적으로, 공격성과는 부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토대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협동, 주장, 자기통제와 같은 사회적 역량의 향상으로 이

어졌다는 연구결과(이선희, 이은경, 박선영, 2019)와 부모가 아동을 애정적으로 대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자원을 얻어 자기표현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백서호, 김장희, 2023)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가 온정적이며 애정을 갖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공격성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Eron, 1982)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거쳐 각각 상이한 방향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며, 주장성과 공격성 간 발달 양상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주장성과 공격성을 각각 독립적인 변인으로 두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통해 차이점을 비교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 경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사한 간접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율성, 사회적 기술, 정서지능 등 특정 발달 영역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Webster, Low, Siller, & Hackett, 2013; 이미란, 2022)를 일부 뒷받침하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 역할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동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주장성과 공격성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수준에서는 복합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연구 결과 해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주장성과 공격성의 하위요인을 각각의 변인으로 사용하여 각 개념이 의미하는 면밀한 차이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주장성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외에도 자기조절력, 인지적·정서적 공감 등 다양한 개인 내적 요인이 주장성과 공격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Ames et al., 2017; 이한중, 2015).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통합적인 구조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의 경우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의한 설명력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개인의 기질, 사회적 환경, 또래관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행동 특성임으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주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국내에서 개발되었으나, 아직 활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경험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주장성에 초점을 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장성 측정도구의 지속적인 검토와 타당화 작업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온정적 양육태도만을 사용하였으나, 양육태도는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애착 유형이나 의사소통 방식 등의 관계적 요인을 포함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아동의 주장성에 대한 실천적 부모 양육 요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 학년 아동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아동이 직접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주장성 및 공격성을 모두 평가함으로써 변인 간 관계가 실제보다 과대추정되었을 수 있고,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장성과 공격성은 행동의 표현보다도 이를 수용하는 상대의 인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사회적 행동 양식이라는 점에서(Ames et al., 2017)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의 주체와 수용자 양측을 동시에 조사하여 동일한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지는 자율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부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의 감독 하에 응답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효과의 크기나 인과적 해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의 C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 학년 아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녀의 성비가 여아에게 더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의 비율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포괄하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장성과 공격성을 각각 독립적인 변인으로 구분하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통해 두 변인의 발달기제를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주장성 및 공격성과 관련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경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주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해 부모의 균형있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서영 (2010).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소연 (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기술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훈 (2003).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주, 최난이 (2021).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9(2), 37-54.
<https://doi.org/10.35639/daehan.2021.19.2.37>
- 구현주, 문혁준 (2023).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대학생의 대인

- 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5), 337-350.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5.337>
- 김성희 (1984). 주장행동의 요소. *學生指導研究*, 17(1), 11-26.
- 김지원 (2023).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사회불안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4(3), 581-601.
<https://doi.org/10.15818/ihss.2023.24.3.581>
- 김철희 (2014). 아버지의 공격성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심, 송승민, 엄희경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61-178.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2.161>
- 박미향, 김완일 (2014).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475-501.
- 박선옥, 이은희 (202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방어효능감의 매개역할: 또래괴롭힘 방어자를 대상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6(3), 141-160.
<https://doi.org/10.33770/JEBD.36.3.7>
- 박성연 (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박영숙 (2022). 비행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79, 33-58. <https://doi.org/10.35422/cwsk.2022.79.33>
- 백서호, 김장희 (2023). 초등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표현력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30(3), 181-198.
<https://doi.org/10.35734/karp.2023.30.3.010>
- 백양희, 정현영 (2012). 선택적합구증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Story-telling 미술치료 사례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8(2), 71-100.
- 백주희, 장유진 (2023).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특성이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간연구*, 50, 299-326. <https://doi.org/10.21738/JHS.2023.8.50.299>
- 보건복지부. (2022).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소아·청소년*. 세종: 보건복지부.
- 서지혜, 김유미 (202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361-373.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361>
- 송미옥, 이경호 (2017). 유아 공격성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영향: 유아, 어머니 변인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1(1), 69-96.
- 여태철, 김명섭 (2019). 또래 내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1), 577-595.
<https://doi.org/10.24159/joec.2019.25.1.577>
- 오인경, 백지숙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79-88.
- 이다경, 엄시창 (2015).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277-298.
<https://doi.org/10.35151/kyci.2015.23.2.013>
- 이미란 (2022). 아버지 양육태도가 영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2(5), 67-84.
-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서경, 이영호 (2024). 청소년기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성인기 사회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4), 967-979.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24.967>
- 이선희, 이은경, 박선영 (2019).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4), 37-57.
<https://doi.org/10.14698/jkce.2019.15.04.037>
- 이소현 (2018).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2), 117-127.
<https://doi.org/10.117127.10.21213/kjcec.2018.18.2.117>
- 이승은 (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공격성과 관계 연구. *인격교육*, 12(2), 69-94.
<https://doi.org/10.18015/edumca.12.2.201808.69>
- 이영숙 (2003). 부모의 수용-거부와 아동의 자기표현, 자기유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22). 대학생의 자기애와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9(1), 121-145.
<https://doi.org/10.21509/KJYS.2022.01.29.1.121>
- 이인복, 서미정 (2024). 청소년의 도덕적 정체성, 피해자 공감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간의 관계: 자기주장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32(1), 139-158.
<https://doi.org/10.35151/kyci.2024.32.1.007>
- 이진실 (2019). 매개변인이 포함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공변인 통제를 위한 모형설정 방법 비교: 모의실험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3), 5-32.
<https://doi.org/10.14816/sky.2019.30.3.5>
- 이한중 (2011). 아동용 주장성 척도의 개발. *교육과학연구*, 42(1), 107-123.
- 이한중 (2012). 아동용 주장성 척도(Child Assertiveness Scale)와 Children's Assertive Behavior Scale의 타당도

- 비교. *교육방법연구*, 24(4), 713-728.
<https://doi.org/10.17927/tkjems.2012.24.4.713>
- 이한중 (2015). 아동의 주장성과 공감에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6(3)
<https://doi.org/49-69.10.15854/jes.2015.09.46.3.49>
- 임화정, 민경아 (2024). 유아기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3), 93-110.
-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중학생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54-79.
- 조한익 (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이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4), 269-287.
- 주봉정, 장형심 (2024).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31(12), 207-238.
<https://doi.org/10.21509/KJYS.2024.12.31.12.207>
- 최은영, 최인령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최주영, 서경현 (2015). 수용-거부 부모양육과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정서표현 갈등 및 대인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75-191. <https://doi.org/10.17315/kjhp.2015.20.1.010>
- 하문선, 김지현 (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 (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세영, 조연수, 유설희 (2023).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30(4), 185-196.
<https://doi.org/10.15284/kjhd.2023.30.4.185>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 (2020).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41(3), 13-23.
<https://doi.org/10.5723/kjcs.2020.41.3.13>
- 한영숙, 정영선 (2022).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경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43(3), 247-261. <https://doi.org/10.5723/kjcs.2022.43.3.247>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황대현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s, D., Lee, A., & Wazlaewk, A. (2017). Interpersonal assertiveness: Inside the balancing ac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6).
<https://doi.org/10.1111/spc3.12317>
- Arrindell, W. A., & Engebretsen, A. A. (2000). Convergent validity of the short-EMBU an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Dutch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7(4), 262-266.
[https://doi.org/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https://doi.org/10.1002/1099-0879(200010)7:4<262::AID-CPP257>3.0.CO;2-9)
- Barrett, D. E., & Yarrow, M. R. (1977). Prosocial behavior, social inferential ability, and assertive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75-481.
<https://doi.org/10.2307/1128642>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780-790). New York: Plenum Press.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2), 197. <https://doi.org/10.1037/0003-066X.37.2.197>
- Grolnick, W. S., Caruso, A. J., & Levitt, M. R. (2019). Parenting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 34-64). London, England: Routledge.
- Hart, W., Adams, J., Burton, K. A., & Tortoriello, G. K. (2017). Narcissism and self-presentation: Profiling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ts' self-presentation tactic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48-57. <https://doi.org/10.1016/j.paid.2016.06.062>
- Hart, W., Richardson, K., & Tortoriello, G. K. (2021). Revisiting the interactive effect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responses to ego threat: Distinguishing between assertiveness and intent to har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7-8), 3662-3687.
<https://doi.org/10.1177/0886260518777551>
- Kernberg, O. F. (1995).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Klein, M. (2018).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1. In J. Riviere & M. Klein (Eds.), *Developments in psychoanalysis* (pp. 292-320). London, England: Routledge.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rauss, S., Orth, U., & Robins, R. W. (2020). Family environment and self-esteem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from age 10 to 16.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119(2), 457.
<https://doi.org/10.1037/pspp0000263>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New Orleans, Louisiana: University of New Orleans.
-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312-33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7.tb01942.x>
- Newell, C. H. H. L. D., & Olsen, S. F. (2003). Parenting skills and soci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In J. O. Greene & B. R. Burleson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 (pp. 771-816). London, England: Routledge.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su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
<https://doi.org/10.1037/0012-1649.16.6.644>
- Rosen, K. S. (2018). 사회정서발달: 애착관계와 자기의 발달. 유미숙, 이영애, 류승민, 박소연, 박현아(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2017)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https://doi.org/10.1080/14616730500365928>
- Stipek, D., & Iver, D. M. (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21-538.
<https://doi.org/10.2307/1130719>
- Thompson, R. (2006).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Social understanding, relationships, Conscience, Self. N. Eisenberg.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24-98). New York: John Wiley & Sons.
- Webster, L. L., Low, J., Siler, C., & Hackett, R. K. (2013). Understanding the contribution of a father's warmth on his child's social skills.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 11(1), 90. <https://doi.org/10.3149/fth.1101.90>
- Winnicott, D. W. (2018).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Studies in the theory of emotional development*. London, England: Routledge.